

고철 값 연일 상승... 고물상 '울상'

물량 크게 줄어들고 세금부담은 갈수록 커져

광주지역 고철상들이 울상이다. 최근 국내 고철 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고철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고철상들은 장부상으로 매출액이 오르는 바람에 세 부담은 팍팍 늘어나는 반면 가격 추가상승 기대 때문에 고철물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재활용품 수집유통업체인 J자원, 5t 집계차 4대가 1천 322.32m² 넓이의 집하장(集荷場)에서 철근과 고철, 폐 생활용품 등을 각각 나눠 싣고 있었다. 폐 생활용품을 싣던 5t 집계차는 광음을 내며 바빠 움직였으나 고철 등을 들어 올리던 집계차는 맥이 풀린 모습이였다.

이를 지켜보던 이 회사 간부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다. 값 폭등으로 세(稅) 부담이 늘어난 때문이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마진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많은 물량을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현재 국내 고철 값은 1kg당 460원선, 철근 값은 1kg당 770원선. 유통업체들의 마진율은 10~20%인 40~80원선이다. 이 업체 사장 김모(39)씨는 "kg당 마진은 제자리인데 고철 값이 오르면서 매출액과 그에 따른 세 부담만 늘어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꼴이다. 이 지역 500여 개 고철 수집상 모두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액공산세가 없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인정해 그만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북구 대촌동 영세 고철 수집상 231.4m² 규모의 집하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한창 물량이 넘쳐나야 할 시기에 고철 품귀현상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안달 난 모습이 역력했다. 이 고철상의 하루 평균 고철 수집량은 고철, 철근 등을 포함해 약 1t 가량이지만 최근엔 500kg 모으기도 힘들다.

40년 동안 고철 등을 수집해 온 고철상 주인 박모(65)씨는 "눈 씻고 광주 일대를 돌아다녀 봐야 했고 생만 한다. 고철 보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며 "예전엔 가정집 같은데 가면 고철을 쓰레기로 여겨 공짜로 줬는데, 요즘은 고철 값 상승 소식이 알려지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푸념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국내 철근 원자재 평균 가격은 t당 37만4천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46만원까지 치솟았다. 한 달 새 24% 이상 오른 셈이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국내 제강사들의 생산능력이 확장되



28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 고물상 집하장에 각종 고철과 폐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다. 고철 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물상 주인들이 이종고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면서 원자재 수요도 급증한 탓이다. 광주지역 한 재활용품 수집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고물상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1인당 한도액이 4천300만원으로 고정돼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철 값이 오르면 만큼 한도액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지렁이 단팔빵' 제조사에 5천만원 요구

광주 북부경찰서, 30대 제보자 공갈 미수 입건

광주 '지렁이 단팔빵' 사건과 관련, 제보자가 제조사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북부경찰청은 28일 "지렁이가 단팔빵 속에서 발견됐다"며 신고해 금품을 요구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

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구입한 단팔빵을 먹던 송씨의 빵 양금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

겨 이를 복구청에 신고한 뒤 (주)S식품에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이다. 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S식품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렁이가 빵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참작해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냐"는 적은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S식품도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과 S식품을 관할하는 경기도 시흥시는 송씨와 S식품 관계자의 진술, 자체실험 결과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 당시 빵 안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국과수, 사상 첫 '지렁이 부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렁이를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27일 국과수에 문제의 지렁이와 단팔빵을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을 의뢰한 이유는 제보자 송모(38)씨 등의 진술이 오락가락함에 따라 지렁이가

죽은 시점과 원인, 가열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문제의 지렁이(길이 4~5cm)는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구입한 단팔빵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지렁이(길이 4~5cm)는 피부에 촉촉함이 보일 정도

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 제보자 송모(38)씨의 신고대로 문제의 지렁이가 빵 속에서 나온 것인지, 누군가 고의로 집어넣은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과수에서 지렁이가 죽은 시점

과 원인을 밝혀낼 경우 제조·유통과정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렁이가 죽은 지 닷새나 지나 발견 당시 원형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다 지렁이가 발견된 정황이 빵 봉지가 이미 개봉되고 송씨가 이미 한 입 먹은 뒤여서 이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선별히 판단할 수 없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원조 퇴폐노래방 '철퇴'

광주지법, 업주 3명에 징역 8월~1년·집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28일 유혹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유혹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여·58)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건물 1층과 2층에 노래방을 차려놓고 14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유혹주점 허

가도 받지 않은 채 하루 평균 1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들에게 손님들의 흥을 돋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노래방은 도우미들에게 손님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등 퇴폐 영업행태로 소문난 곳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릴 만큼 성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참 (7470) 김중두



유용한 광주·신입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부착 및 상담행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공점 : 061) 337-0571

해의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원정 성매매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성매매 사건 처리에 대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한 사건 통보와 관련 서류 공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차량 '날치기 2인조' 검거

7차레 1,300만원 훔쳐

광주북부경찰청은 28일 도심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삼승적으로 날치기를 한 문모(25·북구 두암동)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0시5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

동 H아파트 앞길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가다 양모(여·36)씨의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 이들은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한식(寒食·4월 5일)을 앞두고 곡성군 겸면의 한 잔디농장에서는 묘단장에 쓰일 잔디 출하 준비가 한창이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건배 前해태회장 징역형

'기업 망해도 기업이 살아남는 관행' 경중

기업 총수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 않고 거액의 회사돈을 꺼내다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의 회사돈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써버린 혐의(특정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이 사는 살아남는" 잘못된 관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IMF 이후 기업들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총수가 개인적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주 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 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계열사에 35억4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섬진강 모래 채취 농민 협박 돈 뜯은 특수지 기자 조사

구례경찰청은 28일 금지구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농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N환경신문 기자 박모씨(44)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순천시 황전면 선별리 섬진강변에서 집 수리에 사용하기 위해 모래를 채취하고 집으로 가던 농민 김모씨(36)

에게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했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해 29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환경신문기자로 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진술과 CCTV 분석, 차량 조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갈취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운전자 바뀌치기' 경찰 알린 목격자 보복 폭행

광주북부경찰청은 28일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뀌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알린 목격자를 폭행한 이모(46·북구 우산동)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밤 10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음식점 주인 김모(30)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가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

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시간 전 식당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김씨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주은 휴대전화 주인행사 과외비 '꿀꺽'

○주은 휴대전화 주인행사 과외비 '꿀꺽' 28일 주은 휴대전화의 주인 행세를 하며 과외교습비를 가로챈 정모(16)양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양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4분경 목포시 용당동 농협에서 이모(45)씨로부터 과외교습비 40만원을 송금받아 쟁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정양은 1주일 전 C대학 내 현금지급기에서 박모(여·19)씨가 두고 나온 휴대전화를 훔친 뒤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내던 중 박씨가 과외지도도를 하는 학생의 어머니 이씨가 '과외교습비를 어떻게 보낼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답장을 보내 돈을 가로챘다고. ○중학교를 중퇴한 정양은 경찰에서 "PC 게임방 이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봄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흐려져 비	4~17℃
포항	흐려져 비	5~14℃
여수	흐려져 비	7~14℃
완주	흐려져 비	3~14℃
구례	흐려져 비	2~17℃
해남	흐려져 비	1~14℃
장흥	흐려져 비	1~15℃
고흥	흐려져 비	2~15℃
순천	흐려져 비	2~17℃
영광	흐려져 비	2~14℃
진도	흐려져 비	3~15℃
전주	흐려져 비	3~16℃
남원	흐려져 비	0~17℃
홍성	흐려져 비	6~14℃

서해남부 안바다=북동~남동풍 과외 1.0~2.0m
남바다=북동~남동풍 과외 1.0~2.5m
남해서부 안바다=북동~남동풍 과외 1.0~2.5m
남바다=북동~남동풍 과외 1.0~3.0m
목포 밀물 < 06:27 썰물 < 11:48
18:17 밀물 < 23:36
여수 밀물 < 01:01 썰물 < 07:27
12:54 밀물 < 19:06

▲해돋이 06:24 ▲해질 18:51 ▲달출 01:11 ▲달집 10:35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30(일)	31(월)	4/1(화)	2(수)	3(목)	4(금)
날씨						
최저/최고	7/12	4/20	4/21	4/19	5/20	4/21